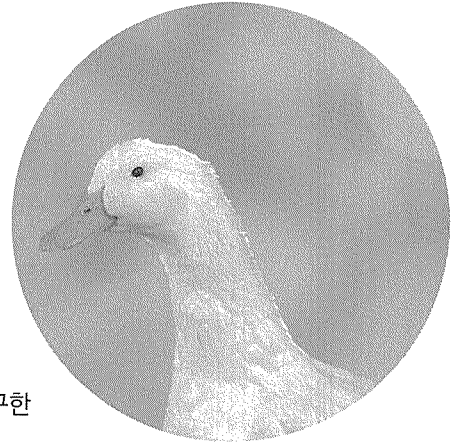


오리 및 오리고기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에 대한 조사 연구



- 본 내용은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팀 주관, 한국오리협회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자료이며 이번호를 필두로 연재를 시작한다.

I. 제목

오리 및 오리고기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에 대한 조사 연구

II. 연구개발의 중요성

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오리가 축산 부문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상되다가 지난 2003년 말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발로 치명적이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발한 최초의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원지가 오리농장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오리 때문에 양계산업을 망쳤다는 원망이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 고기와 알에 불포화 지방산 DHA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고 해독작용, 항암작용도 있다는

설이 있어 오리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2002년에 국민 1인당 소비량 1.07kg)

또한, 벼논에 오리를 방사하면 오리가 해충을 먹이로 먹기 때문에 살충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어서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오리가 벼 포기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님으로서 김매기와 같은 효과가 있어 쌀 증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일명 오리 쌀을 일반 쌀보다 50%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나마 주문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오리가 잡식성인 성질을 이용, 남은 음식물을 오리로 하여금 먹게 함으로서 도시행정의 난제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주장 등이 오리 사육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전국에는 1만여 농가가 9백만 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오리고기 생산은 103,386톤으로 전년(2002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이나, 2001년에 비하면 1.2배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오리고기 자급율이 94%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총 11만톤(지육기준)이 소비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닭고기에 비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오리고기 소비량이 닭고기 전체 소비량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오리고기는 닭고기보다 가슴살이 덜 딱딱한 것으로 평가되어 딱딱한 닭고기 가슴살을 싫어하는 우리국민의 식습관에 부합됨으로서 오리 산업의 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오리고기 일본 수출길이 열리면서 오리 사육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수입규격에 적합한 오리고기 생산문제가 급격히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정보를 믿고 오리사육을 시작한 농가들은 “잘 되면 자기 능력이요, 잘못되면 정부탓”으로 돌릴 소지가 있어 자칫 농정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농가로 하여금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오리가 기타가축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농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과정에서 농장단계에서의 사육실태, 방역체계, 가공단계에서 도압(도축)실태, 오리 고기에 대한 유통 및 소비 실태에 대하여 한번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 없이 보도형식의 일회성 취재 수준의 정보나 구전으로 내려온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리의 사육의 방역체계, 도압(도축), 오리고기 유통, 오리고기 소비실태를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나아가서 수입자유화의 여파로 소득원을 잃은 축산 농가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지금까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할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리사육 농가와 오리고기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지금까지는 오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채, 오리 사육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문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앞서 지적한 대로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리농장의 방역체계를 포함한 사육, 도축, 오리고기의 유통실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리에 대한 별도의 사육 기술이 없어도 육계에 준하여 적용함으로써 유지가 가능했으나 오리고기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오리의 사육, 도축, 오리고기의 소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식품의 소비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계에서 영양 보충을 위한 단계로, 더 나아가서 영양보충 단계에서 보신을 위한 단계로 접근해 가고 있다.

최근 들어오리고기가 성인병에 좋다는 속설에 따라 오리 고기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격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오리와 양계산업을 별도로 간주해 왔으나 이번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발로 방역체계를 놓고 오리와 양계의 밀접한 관계가 절실하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리

농가의 허술한 방역체계가 급기야는 한국의 양계 산업을 초토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전통적으로 오리고기는 크게 선호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임신부가 오리 고기를 먹으면 손가락이 붙은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금기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는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새로운 축산 분야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어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신장될지 예측되지 않고 있으므로 오리 고기 소비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1)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오리생산에 대한 자료는 각종 축산개론 교과서에 품종의 소개정도에 그칠 뿐 사양관리, 방역체계, 종오리 생산, 오리고기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분석적인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리의 도축, 가공에 대한 제도 등은 닭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어떤 점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중국으로부터 오리고기가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정책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오리고기의 소비증가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정책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4. 앞으로의 전망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발을 계기로 “오리농장의 안전 없이 양계산업의 안전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오리 산업에 대한 수립이 강력히 요청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대로 보신을 위한 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오리고기를 원료로 한 요리의 소비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기술도입의 타당성

오리고기를 영양식으로 즐기는 나라는 중국 일부를 제외하고는 드물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직접 응용하기는 지난한 실정이다.

Ⅲ.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1. 기술개발의 최종목표

농가단계에서의 오리 사육실태 및 방역체계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여 오리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오리를 일차적으로 가공하는 도압(도축) 실태를 파악하며, 오리고기의 유통단계에서의 2차 가공 및 소비, 오리고기 수출입 실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오리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2. 단계별 목표

제 1단계 : 농장 단계에서 오리 사육의 유형과 사육목적별 실태 및 방역체계를 조사하고 사육

목적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며, 오리사육 농가의 적정 사육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정부재정지원 및 경영 유형별(계열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 2단계 : 오리의 도축과 유통실태 및 가공실태를 조사하고, 도축기술, 도압장 배치, 위생조건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한다.

제 3단계 : 오리고기 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리고기 소비구조, 적정가격, 소비자 기호도를 파악하여 오리고기 소비 가능성을 타진하고, 종합적인 소비촉진 대안을 제시하며, 오리고기 요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 등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3. 기술개발 내용

오리사육농가 생산기술, 방역체계, 경영실태, 사육 목적별 유형에 대하여 50농가 이상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 오리산업을 명실상부한 축산업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오리고기 수출입현황을 파악하고 오리고기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 대안을 제시한다.

오리 도축 및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기술적, 제도적, 관행적 문제점을 파악 개선대책을 제시한다.

오리 고기를 이용한 전문음식점에서의 소비 행태를 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오리고기 소비 증대 가능성을 타진하되, 방역문제나 조류독감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문을 조사,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붕

괴 직전의 오리 산업 위기를 극복하여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IV. 연구개발 방법 및 설계

1. 오리의 생산기술 및 경영실태 조사

오리사육농가 생산기술, 경영실태, 방역 체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오리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리 생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오리 전업 농가 수는 550여 농가(전체 농가수는 14,000)로 평균 사육수수는 8,500수인 바, 이중 50농가 이상을 임의로 추출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로부터 오리 사육농가의 경영성과, 방역체계, 계열화 경영에 따른 문제점,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

오리고기 수출입현황을 파악하여 오리 산업을 명실상부한 축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오리의 도축, 유통 소비 관행 및 행태 조사

오리 도축 및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기술적, 제도적, 각 유통단계별 마진, 위생처리 현황, 소비 행태를 조사 분석한다.

오리고기 및 기능성 오리 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오리요리나 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오리고기 소비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리 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리 사

육, 도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증을 받는다.

3. 활용방안

이 연구 결과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되는 오리 산업에 관심 있는 농가의 경영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고 오리 고기 소비촉진 자료와 산업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V.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오리사육 농가의 입장에서는 오리 농장경영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접할 수 있어서 자가진단을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벤치마킹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에서도 기타가축 육성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구전이나, 보도형식의 일회성 정보에만 의존하던 것을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서 객관적이고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오리 산업 분야를 처음으로 연구 대상으로 정한데 대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